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계층은 노인들이 아닐까. 특히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4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질병은 노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누구나 노인이 되면 질병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최소한 2~3가지 이상의 질병은 상존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노인자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급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도 1순위는 본인의 질병(35.9%)이었다. 그 다음은 우울(19.6%), 자녀와의 갈등(9.8%) 순이다. 노인 자살사도자 3명중 1명이 본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엄청난 사회문제다. 하루 빨리 좋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절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래서 한창 국가의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 하라는 것이다. 질병은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회갑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노(老)에 들어서는 단계로 본다.

즉 노년기의 시작으로 봤던 것이다. 인생 70은 '고래희(古來稀)'라 했다. 70까지 사는 것은 희귀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고희연을 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인생 80시대 되었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의료기술 발달 덕분이다.

하지만 나이의 흔적은 60이 넘으면서부터 여기저기에 남겨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면역체계 약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50세가 넘어가면 열

굴을 비롯한 피부색깔부터 달라진다. 머리칼도 변한다. 관절도 아프다. 특히 현대과학의 혜택을 받을수록 수명은 조금씩 연장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질병이다. 애당초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설계해 놓은 생체시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는 13.8%였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가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연합(UN)이 7% 이상 14% 미만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을 고령사회로 보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앞서 말한 노인문제 그

중에서도 자살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된다면 말이다.

때문에 웰다잉(Well dying)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을 맞이하는 자살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웰다잉 방법을 보면 불치병인지 만성질환인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건강체크,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 또는 수혈 등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하고 자문해 현재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성시간 갖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 및 자서전 작성, 건강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가입해서 이웃을 돕는 등 자원봉사하기.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버킷리스트(bucket list)작성, 추억 볼품 보관, 마음의 빗 청산, 위급순간에 가장 빨리 도움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정해두는 고독사 예방, 자비를 쓰고 사전을 정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가족에게 얘기하는 장례계획 세우기 등이 다.

社說

‘소방로 확보’ 상식이다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법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법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 여부 등을 심사에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목 불확정 등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했고,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들러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28일 공포령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로 인한 과태료 납부가 문제가 아니라 화재 예방 등을 심사에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목 불확정 등이 소방관이 개인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恬 筆 倫 紙

恬 筆 倫 紙

▷ 뜻 : 진국 문염은 토끼털로 처음 붓을 만들었고, 후한 채륜은 처음 종이를 만들었음.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전통시장 화재예방, 우리 모두 관심을

전통시장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전통시장 대부분이 건물이 오래되거나, 가연성 물질들이 골목마다 적재돼 있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좁은 통로와 진입로 주변의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진압에 실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통시장 내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이 50·60대 이상인 분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하고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래시장 현대화로 시설과 안전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통시장은 화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점

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도 어려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에 종사하는 시장 관계자 개개인이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해선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포 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화재 발생에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과 소방차 출동로나 비상구 등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지 말아야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노력은 물론 상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계은 / 여수 연동119안전센터장

생명 구하는 지름길 ‘소방차 길 터주기’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는 화재, 교통사고, 각종 재난상황을 늘 우리에게 커다란 관심과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도로는 정체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차량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화재는 발생시점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울림엔 달려가는 구급차, 소방차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에서도 소방차량 전용공간 및 소화전 주변

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초기대응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한편 긴급환자는 5~6분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즉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지만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만약, 불이 난 곳이 내 집이었다면...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인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 모두 소방차량 양보와 불법주·정차 준법정신을 지키면서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한다.

유금용 /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

Lar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Health Check' (국가건강검진) featuring a young boy and various health check icons.